

'97 특수건물 화재조사 분석집 발간 및 배포

협회에서는 협회의 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특수 건물의 '97년도 화재사례를 조사, 분석한 「특수건물 화재조사 분석」 자료를 발간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97년 중 특수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장에서의 재산피해 및 발화건수의 급증이다. 즉, 특수건물 전체의 재산피해액에 대한 공장의 재산피해액 비율이 전년도 64.5%에서 89.1%까지 상승한 점이다.

둘째, 공동주택의 화재발생 빈도는 전년도에 비해 17건×10-3/년 감소한 31건×10-3/년으로 나타난 반면, 공장은 5건×10-3/년 증가한 27건×10-3/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97년도에 신규로 특수건물에 편입된 공장의 화재건수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전년도보다 47.9% 감소한 45명(사망 5명, 부상 40명)이었으며, 공장, 11층 이상 건물의 순으로 사상자가 많았다.

넷째, 인명피해 중 부상자는 화염노출에 의한 경우가 26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대형물건에는 평소 방열복의 준비 및 화재시 대피요령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다섯째, 소방서에서 집계한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 피해액은 전년도보다 6,003백만원 증가한 10,814백만원으로써 화재 1건당 평균 28.5백

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끝으로, 화재발생 원인을 보면 전기화재가 161건으로 전체의 42.5%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107건으로 최대의 발생원인이었다. 방화(放火)는 전체 화재의 2.6%를 차지하여 예년과 비슷하였다.

(문의처) 한국화재보험협회 위험관리정보센터
(02-780-8111, 구내 361)

(제공처) 한국화재보험협회 기획부 홍보팀
(02-780-8111, 구내 271~273)